

어린이 교통안전 행동특성 알아보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른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교통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자.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



01

어린이는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

어린이는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모든 주의를 자신들의 관심영역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02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버스에 가려서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어린이는 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있다.



03

잘 보이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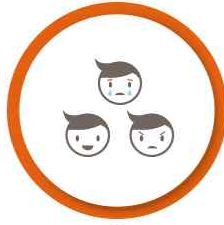
어린이는 차 뒤, 으스스하고 좁은 공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게다가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차가 후진을 한다거나 혼자 떨어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04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가 강해 옳지 않은 행동까지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보이면 이후 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05

기분이나 감정이 변하는 대로 행동하는 충동성이 강하다.

어린이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들뜬 기분일 때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하던 일을 제지당하면 곧 침울해지고 과잉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접근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06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와 거리·속도 추정능력이 부족하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동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손만 들면 차가 멈춘다는 생각을 한다.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법칙 3가지

어린이들은 대개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등 어린이만의 고유한 교통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는 이러한 특성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 법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안전운전 법칙 3가지



01

공을 발견하거나 뛰는 어린이가 있으면 속도를 줄인다.

공이 도로로 굴러가면 공을 따라 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뛰는 어린이가 있으면 쫓아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도로에서 굴러온 공이나 뛰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행한다.



02

승차 전에 차량 주변을 살핀다.

어린이는 구석진 곳을 좋아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등 차량주변에서 노는 경우가 많다. 차량 주변을 살핀 후 승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03

어린이가 도로에 뛰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한다.

골목길이나 주정차한 차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이면도로 운행 시 서행 운전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다양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종 학교 버스, 그리고 학원 및 체육시설 버스 등 운행 기관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차량들이 있다. 그렇다면 법으로 명시한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다음 내용을 참조해보자.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란 아래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 등이 있다. 종사자들에게는 각각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들이 있고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 등 처벌이 따른다.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 각각의 종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도록 하자.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의 업무별 준수사항

통학버스 운영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동승보호자(성년) 동승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 미 탑승 시 동승표지 부착금지	제53조제6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통학버스 신고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운행 요건 준수	제52조제3항	과태료 30만원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운전 또는 동승 지시	제53조의3제3항	과태료 8만원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제7항	과태료 8만원
신고증명서 비치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제53조제4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제53조제5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제53조제1항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53조제2항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제53조의5* (2022.11.26.까지 적용)	범칙금13만원, 벌점30점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
어린이 안전띠 착용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도로교통법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새로 추가된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승보호자

내용	관련법률(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안전교육 이수(매 2년)	제53조의3제1항	과태료 8만원



통학버스 승차 시 사고 사례와 예방법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승차, 하차 시, 그리고 운행 중 사고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통학버스를 보고 반가워서 차도로 뛰어든다가 운행 중 급제동에 넘어지는 경우,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차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까지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방법을 기억해두자.



사고 사례

7살 여아가 아침 등원길에 길 건너편에 있는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다가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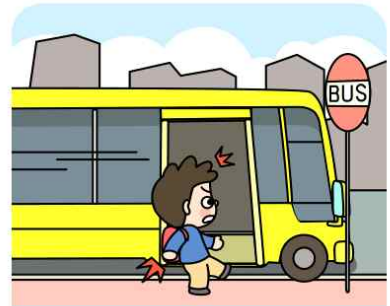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1 차량을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2 차량을 타려고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사고



3 버스 승차 중에 급출발로 넘어지는 사고



사고 예방 방법

1 어린이가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통학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하며 뛰어드는 어린이가 많으므로, 통학버스가 정차할 때는 반대편 도로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유도한다.

2 통학버스 승차 시에는 한줄로 서서 안전하게 타도록 유도한다.



통학버스 앞에서 뛰지 않도록 하고, 승차 시에는 한줄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여 자리에 안전하게 앉도록 유도한다.

3 어린이 승차 후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안전하게 승차한 후에 차량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한다.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사례와 예방법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승차, 하차 시, 그리고 운행 중 사고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통학버스를 보고 반가워서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운행 중 급제동에 넘어지는 경우,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차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까지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방법을 기억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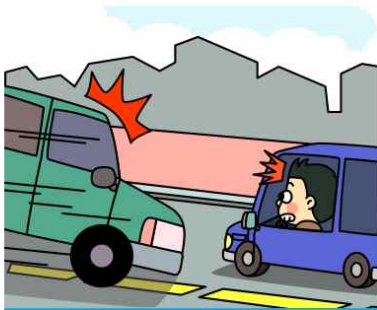


사고 사례

통학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던 중 급제동을 해서 3살 남아를 안고 있던 동승보호자가 넘어졌고 아이가 떨어져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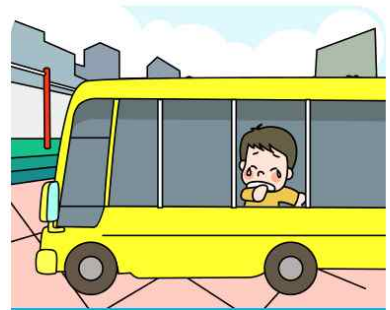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1 급제동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생기는 사고



2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 등 신체일부를 내밀어서 일어나는 사고



3 차량 안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질식한 사고



사고 예방 방법

1 안전띠를 댄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승차하면 안전띠를 잘 댄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여유있는 운전습관을 가지며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

2 통학버스 안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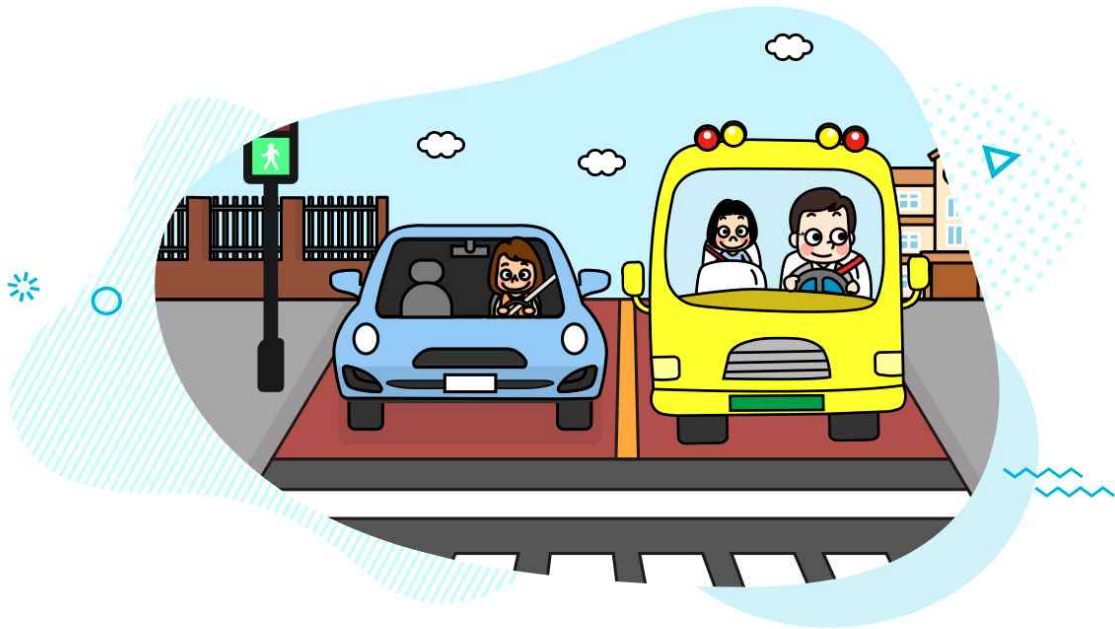


차 안에서 어린이가 장난을 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차창 밖으로 얼굴이나 손과 같은 신체 일부를 내미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3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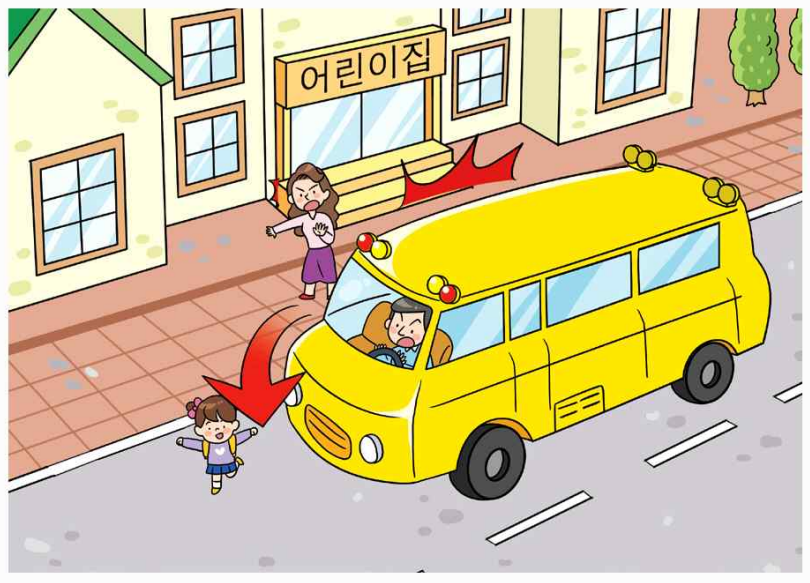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있지 않도록 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꼭 확인한다.



통학버스 하차 시 사고 사례와 예방법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승차, 하차 시, 그리고 운행 중 사고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통학버스를 보고 반가워서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운행 중 급제동에 넘어지는 경우,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차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까지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방법을 기억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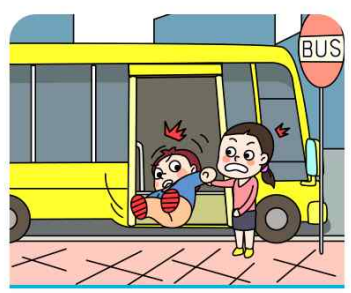


사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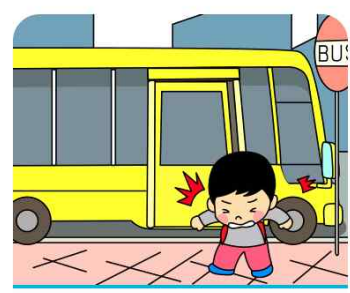
통학버스에서 내린 2살 여아가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운전자를 따라와 버스 앞에 섰다가 출발하려던 버스에 부딪혀 다쳤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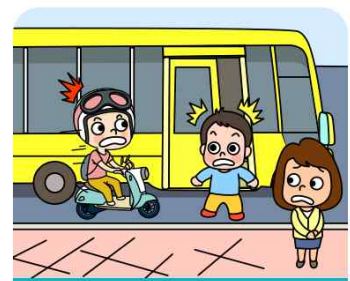
1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



2 차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이는 사고



3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사고



4 내린 후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



사고 예방 방법

1 하차 시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며 내리게 한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뛰어내리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넘어지지 않도록 동승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시킨다. 어린이의 옷이나 가방 등이 문에 끼일 수도 있으므로 차량을 충분히 살핀다.

2 하차 후 출발 전에는 버스 주위를 확인 후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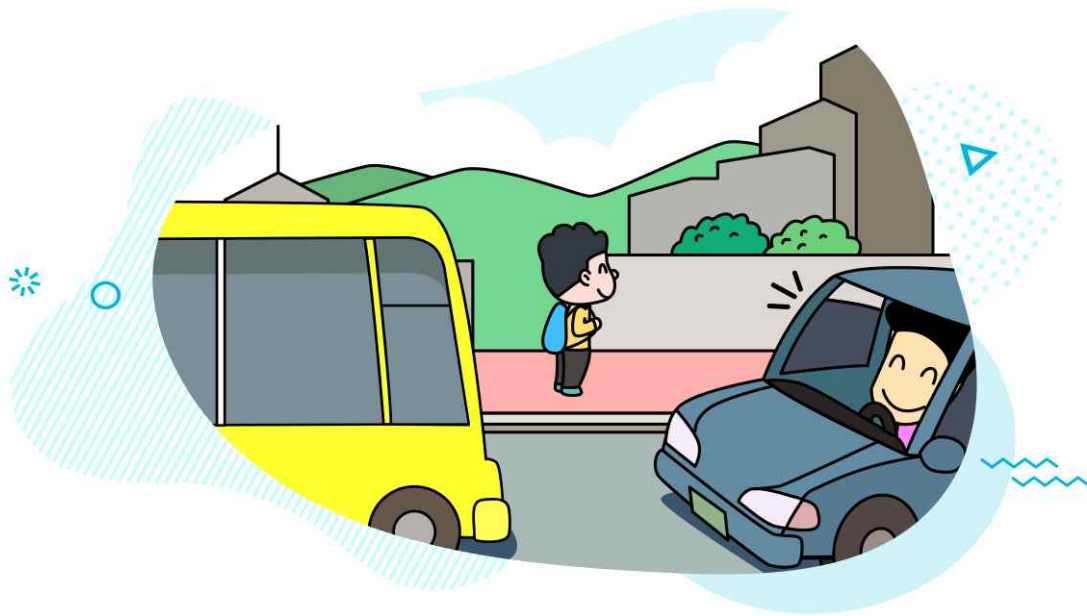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건너는 등 사각지대에 들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버스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동승보호자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운전석 창문을 약간 열고 주행한다.

3 통학버스에서 하차 시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연다.



다른 차량, 특히 차체가 작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지 않는지 버스 뒤쪽을 충분히 살피고 길 가장자리에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에 차 문을 개방한다.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안전부절 못하게 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 외에는 무얼 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조조치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익혀서 피해를 최소화 해 보자.



01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시 정차



차에서 내림



사상자 구호 및 신고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02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운행 중이던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면 된다.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외의 인적피해사고는 경찰에 신고한다.

다친 사람이 없다면 **연락처만 교환하면 된다?**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현장을 떠났거나 피해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아야 사고 후 도주로 판단되지 않는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현장 촬영 등의 증거 확보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관련 법 규정도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세 배로 늘어나고 운전면허 벌점도 두 배로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참고하여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범칙행위 별 범칙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1. 신호·지시 위반	13만원	12만원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15만원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12만원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9만원
	라. 20km/h 이하	8만원

4. 동행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동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9만원	8만원
6. 정차·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3만원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2021.5.11. 시행)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괄호():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 적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면허 벌점

위반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	
1. 신호·지시 위반	30	15	
2.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120	60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60	30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30	15
	라. 20km/h 이하	15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20	10	

※ 민식이법(2020.03.25.시행)

- 도로교통법 :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드뉴스]
함께해요,
안전운전 5030!



<1>



<3>



<2>



<4>

속도를 줄였을 때 교통사고는 얼마나 감소할까?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시속 60km일 때 85%에서 시속 50km 일 때 55%로 감소하게 된다. 즉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 사망가능성이 30% 줄어드는 것이다. 속도차이 10km/h당 제동거리는 25%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도 낮아진다.



<5>

제한속도를 낮췄다고 정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국내 주요도로에서 차량 주행 실험 결과, 도심부 구간 주행시 시속 50km와 6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은 2분 19초에 그쳤다. (출처:경찰청)



<6>